

Saussure의 언어이론과 이분법

金 允 漢
(언어학과 교수)

1. Saussure 언어이론의 정립배경

20세기 초기에 사회학자 E. Durkheim, 심리학자 S. Freud와 같이 Saussure는 인간 행위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그들은 개체적이고 구체적인 개개의 사물에 관한 본질 그 자체를 실증적으로 추구하는 경험주의나 실증주의적 역사주의 시대와 같이 자연과학적 방법만으로 인간이나 인간의 제도 또는 문화적 유산을 충분히 해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개별적 사건의 역사적 인과관계만을 추구한다면 인간행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행위는 일반사회적 구조내에서 고유한 의미를 내포하는 관계 즉 기능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사실은 제도나 가치의 체계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서부유럽 근대사상사의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에서 유래되었다. A. Whitehead가 언급한 바와 같이 19세기의 물질주의라고 칭한 경험주의에서는 개별적 사물에 관한 존재론적 본질에 대한 고찰을 가장 중시했지만 새로운 사상 체계에서는 상대성이론 즉 넓은 의미에서 사물간의 관계에 기초한 이론에 우위성을 둔다.

최근 Saussure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 구조주의언어학은 물론이고 기호론과 구조주의를 정립하는 데 그가 크게 기여한 사실에 집중되고 있다. 그는 특히 언어와 인간정신간의 긴밀한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인문과학의 새로운 연구모델 구성에 혁신적 변화를 야기시켰다. 예컨대 그는 문화현상을 기호체계

로 간주함으로써 언어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문학, 심리학, 예술 등의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새로운 언어학의 형식적 연구 모델을 통해서 외적으로 무질서하고 복잡다양하며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어떤 일정한 관점에 따라서 체계적 방법으로 포착할 수 있는 형식성으로 인문과학 연구에 적용했다. E. Cassirer는 Saussure의 구조주의언어학 즉 이러한 이론 및 방법론적 혁신(패러다임의 교체)을 Galileo의 업적에 비유한 바 있다.

최근 은유적 사용에서 비롯된 구조에 관한 상이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의하려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은 주지할 만한 사실이다. 언어에 관한 체계적 고찰은 언어의 규칙성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며 구조의 개념이 모든 규칙적 형태를 의미한다면 구조주의는 언어 그 자체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Ducrot 1968, 16). 물론 구조주의언어학이 등장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Oestereich (1979, 48~55)가 주장한 바와 같이 Th. Kuhn의 자연과학적 패러다임 교체의 개념은 언어학의 역사에서는 조건부의 적용만이 허용된다. 19세기는 일반적으로 언어의 표현 수단인 음성과 음성으로 구성된 어형변화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언어기능은 주로 문법학자들에 의해서 기술되었지만 그 당시 규범문법을 정밀과학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¹⁾

Paul(1968, 20)이 언어의 과학적 고찰방법은 역사적 방법외에는 없다고 주장한 사실만 보아도²⁾ 그 당시 언어의 공시적 기술에 관한 소홀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사실은 언어상태의 기술을 역사적 연구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ibid. 23f.). 이러한 사실은 그가 개별어의 기술에 있어서 일종의 내재주의Immanentism, 즉 후에 전형적인 구조주의적 고찰방법으로 간주되는 연구방법을 천명했음을 뜻한다. 언어의 구조주의적 연구방법은 17세기, 특히 18세기³⁾ 언어의 전과학적 시대에도, 언어사를 면밀히 고찰한다면 그 이전에도 구조주의적 연구방법이 통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Albrecht 1988, 11f.).

20세기 초기에 구조주의언어학으로의 패러다임 교체의 가장 큰 원인은 실증주의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Saussure가 구조주의언어학의 창시자라는 것은 주지의

-
- 1) 그 당시 문법의 연구대상은 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는 부적합한 문장이었다. Schleicher는 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 문장어보다는 방언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 2) 1880년에 발행된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에는 이러한 그의 견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3) 언어학의 전과학적 시대에 관한 관심은 Chomsky의 *Cartesian Linguistics*(1966)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고조되었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무에서 구조주의언어학을 창조한 것은 물론 아니다. Saussure 이전의 어떤 학파나 개인에 의해서 이미 표명된 여러 이론이나 견해 또는 암시를 그가 종합, 분석해서 그 결과를 시대적 사조에 맞게 체계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가 구조주의언어학을 정립하는 데 어느 이론의 영향을 받았는지 다음에 간략하게 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⁴⁾

Cassirer(1945, 109)는 구조주의의 개념이 18세기에 프랑스 생물학자들 특히 G. Cuvier의 유기체개념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또한 유기체개념이 A. Schleicher에서와 같이 형식적 방법론상의 이해가 아니고 존재론적 이해로서 언어에 이전되었다면 그 개념은 자연주의와 신비주의의 독특한 혼합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편으로 신칸트주의자인 Cassirer는 어떤 확정된 개념적 전제조건에 도움없이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극명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단순한 관념에 대해서 반박하고 1) 과학적 인식의 확립에서 구조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문제와 같은 정도로 중요하며, 2) 전자는 후자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Saussure의 언어이론이 19세기의 자연주의적이고 심리적 확신과 반실증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철학적-심리적 전통은 B. Balzano(1781~1848)에서 시작하여 F. Brentano(1838~1917)와 A. Marty(1847~1914)를 거쳐 E. Husserl(1859~1938)의 현상학에까지 이어지고 그 방계로서 Würzburg와 Berlin의 형태심리학⁵⁾을 형성했다. 이러한 전통을 존중하는 사상가들은 구체적 주체의 사고행위의 경험적 고찰에 관한 순수한 사고를 지양하고 그 당시 논리학과 수학에서 팽배했던 심리주의를 또한 부정했다(Albrecht 1988, 16). Husserl의 전체적 대상의 파악과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분하고 비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려는 현상학과 비엔나씨클의 논리적 분석은 Saussure의 구조주의언어학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⁶⁾ 현상학은 19세기 말 경에 실증주의의 역사적 학문관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비역사적 운동인데 Husserl⁷⁾에 따르면 1) 철학의 연구대상은 유일하고 직접적으로 주어진 현상으로 간주

4) 자세한 것은 Koerner(1973), Jäger(1975), Scheerer(1980, 120~151), Albrecht(1988, 8~23)를 참조하여라.

5) 형태심리학자들은 그들의 반자연주의보다는 반원자론적 연구방법 때문에 구조주의의 선구자로 인정된다. 그들은 실험을 통해서 인지의 본질적 대상은 일반적으로 개별적 사실이 아니고 사실의 복합체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당시의 사변적 사고방식을 부정하는 실증주의자들을 감명시켰다.

6) 논리적 분석은 20세기 초기에 비엔나에서 시작되었고 B. Russel과 L. Wittgenstein은 이 학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되는 의식의 현상이고, 2)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 의미를 가진 일종의 절대적 본질이며, 3) 철학의 연구관계는 피상적 현상의 세계 뒤에 존재하는 보편적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다(Amirova et al. 1975-Meier 1980, 473f.).

Doroszewski(1933)에 의하면 Saussure는 *Régles de la méthode sociologique*(1907)에서 사회 현상을 개인을 구속하는 외재적 집단 현상으로서 객관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Durkheim의 사회학적 방법론의 영향을 받아 언어를 사회적 사실로 정의했으며 L. Walras의 *Éléments d'économie politique pure*(1874)에서 또한 영향을 받아 가치개념을 도입했다.⁸⁾ Schuhardt(1917)는 *Cours*의 서평에서 Saussure가 공시대와 통시대를 구분한 것은 Comte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Comte(*Système de politique positive*, Bd.2. 1852, 1)는 인간에 관한 탐구는 두 본질적 부분 즉 유기체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정적인 연구와 그 진화와 관련되는 동적인 연구로 양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erner(1973, 270)의 분석에 의하면 이외에도 상태, 가치 등의 개념 역시 A. Comte에서 유래되었다. 물론 이러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Saussure가 19세기에 매우 큰 영향력이 있었던 Comte의 저서를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언어학과 언어철학 영역에서 Saussure에게 영향을 준 학자로는 우선적으로 W. v. Humboldt, W. Whitney, Paul, Baudoin de Courtney, Gabelentz 등을 들 수 있다. Humboldt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조주의언어학뿐만 아니라 현대언어학의 개척자다. 그의 많은 저서 특히 *Ü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und ihrem Einfluss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es*(1830~35)는 현대언어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⁹⁾ Jäger(1975, 6)는 Saussure의 언어이론이 해석학적-변증법적 언어철학의 중단되지 않은 전통과 연계되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전통을 Humboldt의 언어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Saussure와 Humboldt의 영향관계를 인정했다.¹⁰⁾ Christmann(1974, 63)은 Gabelentz(1901)가 또한 Humboldt의 영향을 받았고 Gabelentz와 Saussure 언어이론의 기본원칙이 유사함을 들

7) Husserl 그의 이론의 논리적 양상을 가장 중시했다. Hildenbrandt(1972, 8f.)는 Saussure의 *Cours*와 Husserl의 현상학과의 직접적 연관관계를 강력히 시사했고 사회학에서 랑그-빠롤의 이분법을 주장했다.

8) Koerner(1973, 45-71)는 이러한 영향관계를 부인했지만 그 당시 사회학에서 이러한 개념이 통용되었음은 사실이다.

9) Comte에 따르면 1960년과 1976년 사이에만 Humboldt에 관한 160개의 논문이 집필되었다.

10) Saussure와 Humboldt의 연관관계는 Jäger 이전에 Mauro(1983), Lohmman(1967), Ramischvili(1970), Hildenbrandt(1972), Christmann(1972, 1974)에서 이미 논의되었다.

어 이들간의 다양한 관계를 입증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실은 Saussure의 이론과 용어가 Gabelentz의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명확하며 Gabelentz의 이론과 용어가 Humboldt에서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Christmann(1972, 245)이 제시한 Saussure의 이론과 Gabelentz의 이론간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다:

- 1) 언어능력langage / 랑그 / 빠롤의 세 구분
- 2) 통시태와 공시태의 대립적 구분
- 3) 체계개념
- 4) 어휘에 관한 체계적 개념
- 5) 사전과 문법의 구분을 부인한 사실
- 6) 음소에 관한 이론

Sljusareva(1974, 274)는 Humboldt와 Cours의 비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L. Hjelmslev에서 그 이론의 연속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Sljusareva에 의하면 Humboldt의 아이디어와 Saussure의 이론간의 일치는 매우 일반적 성질의 것으로 반복이나 차용의 문제가 아니고 동일한 주제에 관한 후속적 발전이다. 물론 이러한 영향관계는 극명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이에 관해서 한층 더 정확하고 다각적 연구가 요구된다.

Whitney(1875, 1876)의 언어이론은 그 당시 유럽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또한 그의 저서도 많이 번역되었다. Saussure는 1894년에 Whitney에 관한 논문을 집필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일반이론 언어학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Whitney를 극찬했으며 그를 존경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¹¹⁾ Koerner(1973, 74ff.)는 L. Kukenheim, M. Leroy, G. Mounin 등의 논증을 Saussure와 Whitney 간의 영향 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 논거를 제시했다:

1) 언어가 사회제도라는 개념은 Whitney에서 유래되었지만 Saussure는 언어를 다른 사회제도와 명확히 구별함으로써 그가 의도하는 기호학적 의미에서 그 개념을 정확히 규정했다. 사회제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적 관계에 의해서 설정되

11) 이 논문은 미완성되었으며 Saussure의 생전에 출판되지 못했다. 또한 Saussure는 Cours에서 Whitney에 관해서 3번이나 강조해서 언급했다.

는 데 반해서 언어만은 사회적 유효성 즉 사회적 규약에 의해서 생성되었다.

2) 임의성의 개념 역시 Whitney가 공식화했지만 그는 현실과 기호 그 자체간의 외적 관계와 의미와 음과의 내적 관계를 명확히 차등화하지 않았다. Saussure는 Whitney가 “임의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용어 “관습적”의 사용을 거부했다.

3) Whitney도 Saussure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사회간의 관계를 상호작용의 의미에서 규명했다. 따라서 언어와 언어변화는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화자 개개인의 동의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적 산물이다.

4) 물론 체계적이지는 아니지만 Saussure의 랑그-빠롤의 구분 역시 Whitney에서 발견된다. 이외에도 Whitney의 이론에는 개별어와 언어체계의 개념적 구별뿐만 아니라 랑그와 언어능력*faculté du langage*의 구별 또한 내재한다(ibid. 87).

5) Saussure의 가치론, 체계개념, 영부호*signe zero*, 언어를 보존하거나 변화시키는 힘의 정의 등은 Whitney의 영향으로 구체화되었다.

Koerner(ibid. 92)는 위의 사실을 토대로 Whitney가 진정한 의미에서 Saussure의 선구자임을 단정했다. Koerner의 이러한 논거는 Whitney와 Saussure가 모두 다윈주의적 언어관을 비판하고 그들의 언어이론을 정립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었다. Koerner(1976, 700)에 따르면 Whitney가 처음으로 Schleicher적 학문의 패러다임 교체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Saussure가 이러한 패러다임 교체를 완성하여 언어연구에 새로운 관련 체계를 도입했다. Jäger(1975)는 Koerner의 이러한 주장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Jäger에 의하면 그들의 이론은 용어상으로는 분명히 일치하지만 학문적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큰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Saussure와 마찬가지로 Whitney도 Schleicher나 M. Müller의 자연과학적 유기체모델을 지양하고 언어의 특성을 사회적 제도 즉 인간 자유의사의 산물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들의 비판은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Whitney는 경험적 확증의 배후에서 비밀리에 작용하는 자연적 언어능력의 본질에 관한 사변적인 본질적 언표의 유기체개념을 확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Schleicher가 가정한 인과적이고 결정론적으로 작용하는 규칙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Saussure는 Humboldt에서 유래된 유기체개념을 수용했다. 예컨대 Saussure의 이론만이 임의성의 원칙과 인간의 자유스런 행위에 기초한 기호를 창조하는 사회적 발화행위의 산물로서 Schleicher의 언어 유기체론과 대립된다. 다시 말해서 Saussure는 Schleicher적 유기체개념에서 Saussure의 특성인 주체성과 자유와 관련하여 언어본질

의 결정론적 환원을 추구했지만 Whitney는 과학적 확증szientifische Begründung 즉 자연철학적 사고의 결정론의 학문적 정화를 목적으로 했다(ibid. 241). 따라서 이러한 서로 상이한 학문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Whitney와 Saussure는 선구자와 완성자로 인정을 받는다. 양자는 사회제도의 개념과 의미를 서로 다르게 보았다. Whitney는 랑그의 개념을 언어 이전에 이미 그 체계가 마음 속에 내재하는 개개인의 고립된 발화행위의 총화로 간주했다. 반면에 Saussure는 임의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Whitney의 이러한 랑그개념을 부인하고 사회적 유효성을 언어의 체계적이고 의미함유적 객관성에서 우선적으로 생성되는 모든 기호창조적 행위의 산물로 이해했다. 이외에도 그들은 자유와 결정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가지지 않았다. Saussure에 의하면 객관적 언어사실은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기호학적 행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는 결정론적 설명을 배제했다. 그러나 결정론적 설명은 Whitney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인간행위의 자유는 부차적 현상이다. 결국 언어학은 Saussure에게는 정신과학인데 그 이유는 언어학의 연구대상이 역사적으로 객관화된 인간 주체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Whitney의 견해는 언어학을 자연과학에 소속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후에 Saussure가 젊은이문법학과와의 논쟁에서 취한 입장과 일치한다(ibid. 253f.).

Saussure가 구조주의 언어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Whitney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언어학자는 거의 없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Saussure가 Whitney의 이론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했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서로 상이한 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견해가 옳다. 그래야만 왜 Saussure가 비판한 그 당시의 언어이론에 Whitney의 이론도 포함시켰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Scheerer 1980, 150).

Paul의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1880)는 젊은이문법학과의 경전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언어이론보다도 19세기 말경 유럽과 미국의 언어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Paul(1975, 39)에 의하면 아무리 간단한 역사적 사실이라도 직감이나 추리력없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본질에 가장 적합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 언어상태의 기술을 인정하고 비체계적이고 직감적인 전통언어학과는 대조적으로 언어의 체계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가 현대언어학 이론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그는 낭만주의에서 유래된 언어 유기체설의 토대 위에서 언어를 가치체계로 보는 Saussure의 구조주의 이론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Saussure는 Paul의 자료중심적이고

부정확한 경험적 언어 연구방법과 언어사실에서 정확한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 이론 부재현상에 관해서 비판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확고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공시언어학의 우위성을 주장했다.¹²⁾ 예를 들면 Paul은 경험적 관점에서 언어습관은 개인적 발화에 관한 연구와 그 비교에서 얻어진다고 주장한 반면 Saussure는 한층 더 논리적 방법으로 랑그의 존재를 가정하고 개인적 언어행위를 경시했다. 그러나 Saussure가 Paul에게서 랑그와 빠롤외에도 공시대와 통시대, 심리적 연합개념 등 구조주의언어학의 중요한 이론을 답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Koerner 1972, 290f.). 다시 말해서 Paul은 그의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에서 현대언어학의 핵심적 이론에 관해서 이미 논술했거나 적어도 암시적으로 언급했다(Cherubim 1973, 316~19). 그의 언어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정립한 다른 이론을 도외시키고 그가 주장한 역사성에 관한 모순성만을 강조했을 뿐이다.¹³⁾ 예컨대 그가 기술문법과 언어사를 구분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 언어단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언어상태의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언어변화에 관한 연구를 언어학의 기본원칙으로 간주한 Paul은 이러한 언어상태의 기술이 역사언어학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Koerner(1973, 180ff.)는 기술문법과 언어사의 구별, 개인언어Rede와 언어공동체의 구별과 언어 상태의 개념을 Paul 언어이론의 세 주요 양상이라고 지적하고 언어라는 개념하에서 이러한 사실을 구조적이라고 칭했다. 따라서 Paul의 이론이 Saussure의 Cours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Paul이 Saussure의 선구자라면 당연히 현대 구조주의언어학의 선봉자도 되어야 한다. Koerner의 분석에 의하면 현대 구조주의언어학의 정립은 Saussure가 Paul 이론의 내적 모순성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통시대와 개인어의 존재를 무시함과 동시에 공시대와 사회적 언어공동체를 구체화한 사실에 기인한 듯한 느낌을 준다. Jäger(1975, 155)는 Koerner가 Paul의 언어변화 이론을 검증하지 않고 그의 공시적 이론만을 무비판적으로 취급했다고 반박했다. Paul의 역사이론이 Saussure 언어이론의 정신사적 전제조건을 규명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은 방법론적인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Saussure의 이론

12) 1908년에 Saussure는 Paul의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를 여러 언어현상만을 나열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Saussure의 평가는 Paul의 경험적 고찰방법의 미비함과 언어사실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한 그의 시도에 대한 실패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올바른 평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3) Paul(1975, 20)은 언어의 역사적 고찰 방법 외에는 다른 과학적 연구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 Paul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Saussure는 Paul의 이론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1909년 A. Riedlinger와의 대담에서 공시적 언어연구에 관한 Paul과 그 당시 여러 언어학자들의 이론을 논박했다(Godel 1969, 29).

J. Baudoin de Courtenay는 언어의 정적인 분석 즉 공시적 언어상태 요소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했으며 Paul과 Saussure와도 교신을 했다. Baudoin de Courtenay는 언어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언어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사-비교 방법보다 정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언어체계가 언어요소의 확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컨대 그는 언어연구에서 정적인 (공시적) 면과 동적인 (통시적) 면을 구분했고¹⁴⁾ 또한 기술적 방법도 적용했다.

1923년 Petrograd에서 개최된 언어학 세미나에서 Cours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세미나 참석자들은 Kazan학과의 창시자인 Baudoin de Courtenay의 이론과 Cours가 많은 점에서 분명히 일치됨을 발견했다(Sljusareva 1974, 754f.; Jakobson 1960/71, 231). 결과적으로 Baudoin de Courtenay의 선제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와 Saussure의 영향관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N. Trubetzkoy는 영향관계를 부인했고 Jakobson이 그 관계를 인정했다. Stankiewics(1976, 4)는 Saussure가 Baudoin de Courtenay의 이론을 거의 그대로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1891년에 Saussure는 Baudoin de Courtenay와 M. Kruszewski¹⁵⁾가 극소수의 진보적 이론가에 속한다고 했으나 1908년에는 Baudoin de Courtenay의 이론의 효과와 영향이 미세하다고 평가했다.

Koerner는 공시적 연구에 대한 편중성과 체계와 실현의 구별(Baudoin de Courtenay의 이론에서는 잠재적이지만) 그리고 음소개념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주의적 기준 등에서 양자의 이론적 근거의 동일성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oerner (1973, 140)는 또 한편으로 그들의 서로 상이하지만 보충적 작업방식을 강조했다.

14) Baudoin de Courtenay는 언어의 정적인 면은 존재하지 않으며 언어의 정적인 상태는 동적인 상태의 특수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15) Kruszewski는 Baudoin de Courtenay와 더불어 Kazan학과의 대표적 학자다. Kazan학파는 철학, 논리학과 수학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학문적 추상화를 추구했다. Kruszewski에 의하면 언어학의 과제는 언어발전의 자연적 발전과정을 규정하는 데 즉 언어의 형식적이고 기능적 면의 발전법칙을 발견하는 데 있다. Jakobson은 그를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언어이론가중의 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으며 Kruszewski가 Saussure의 *Mémoire*(1878)의 음소개념 이외에도 언어의 사회적 특성과 통합적 및 계열적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Koerner는 일반적, 철학적 관점에서 이들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Kruszewski는 경험적이고 귀납적 방법으로 그의 이론을 정립했고 언어를 기호체계로 이해하지 않고 언어체계를 규명하려고 했다.

Baudoin de Courtenay는 현지조사와 음소기술에 관심을 가진 경험자인 반면에¹⁶⁾ Saussure는 뼈골의 언어학을 인정은 했지만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Baudoin de Courtenay는 젊은이문법학과에 대항해서 독자적이고 앞질러 가는 언어학자이며 정적인 언어 고찰방법과 진화적 방법의 변증법적 상호 연관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언어이론을 정립했다. 따라서 그의 이론은 공시적 언어고찰에 일방적으로 우위성을 부여한 Saussure의 이론과는 다르다(Häusler 1976, 531). Baudoin de Courtenay의 경우 분명히 이데올로기상의 이유로 여러 상이한 비판을 받게 되는데 새로운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 평가를 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또 한편 Saussure의 철학적 견해의 모든 절충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주의언어학에서 고의적이고 오인된 Saussure의 의미와 함께 이러한 절충주의를 자발적 유물론자 Baudoin de courtenay와 그의 변증법적-유물론적 언어관의 의미에 진보적이고 합리적 이론의 일반적 재평가를 할 기회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언어학의 역사기술 편찬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 것이다. Sljusareva(1974)는 Baudoin de Courtenay 와 Saussure는 영향을 주고 받았지만 그 영향은 두 학자간의 일관되고 통일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그들 모두가 상대방의 연구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결론지었다.

Gabelentz(1891)에 관한 연구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활기 띠기 시작했으며 Rensch(1966, 1967)가 Gabelentz와 Saussure의 영향관계에 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¹⁷⁾ 이러한 영향 관계는 Coseriu(1969)의 상세하고 부분적인 Sprachwissenschaft와 Cours의 총괄적인 텍스트비교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입증되었다. Gabelentz는 언어능력 Sprachvermögen, 개별어 Einzelsprache와 언어 Rede의 3중 구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어의 공시적 연구와 계보적-역사적 연구를 명확히 구별했다. Gabelentz의 이론은 다음에서와 같이 Cours와 일치한다(Scheerer 1980, 134f.):

- 1) 공시태는 화자의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 2) 상태의 기술은 역사적 사실과 구별된다.
- 3) 통시대와 공시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16) Koerner(1975, 760ff.)는 Baudoin de Courtenay의 언어이론을 Schleicher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보았으나 Häusler(1968, 1976)는 Baudoin de Courtenay의 이론이 Schleicher의 생물학주의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17) 1960년대 중반 경부터 역사언어학에 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aul에 관한 연구는 부진상태다. 괄목할만한 사실은 Paul 대신에 Gabelentz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 4) 공시태는 체계적 연관관계에 관한 고찰인 반면에 통시태는 개별적 사실의 규명에 역점을 둔다.
- 5) 통시태를 음성학과 대등하게 취급했다.
- 6) 내적 언어학과 외적 언어학의 구별
- 7) 언어개념과 음성학, 문법 및 어휘론의 영역에 관한 개념에서의 상응성

물론 Saussure 이전에 다른 많은 언어학자들도 위에서 언급된 아이디어나 주제중에서 두서너 개의 동일한 주제에 관해서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저자에게서 모두가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는 없었다(Coseriu 1967, 97). Saussure는 정보에 민감했고 또 그의 서재에 Gabelentz의 *Die Sprachwissenschaft*(1891)의 초판이 소장되어 있다 (Gambarara 1972, 339)는 사실로 보아 영향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Coseriu나 Gambarara 등과는 달리 Koerner(1973, 176ff.)는 다수의 비교가 너무 피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명칭상으로 유사한 구별, 예컨대 Gabelentz의 개별어의 연구와 역사적 연구의 구별은 실제로는 Saussure의 의도와는 상반된다. Saussure에 의해서 정의된 용어로 이해되는 몇 개의 개념은 Gabelentz에게는 다만 일반적 일상용어일 뿐이다. 이외에도 언어학의 연구대상에 관한 언명도 상호간 상응하지 않는다. Gabelentz가 언어능력을 언어학의 우선적 연구대상으로 취급하면서도 그는 일종의 언어수행모델을 추구했다(Koerner 1975, 792). 말하자면 Gabelentz는 Saussure가 중요시하지 않은 빠물의 현상을 우선적으로 취급했다. Coseriu에 대한 Koerner의 주된 반박은 Gabelentz의 견해를 Coseriu 자신의 언어이론상의 개념으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현재 구조주의언어학의 관점에서보다는 Humboldt나 젊은이문법학과의 수준에서 Gabelentz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Koerner(1973, 188)도 결국 영향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는 Saussure가 Gabelentz의 저서를 참조했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ibid. 181).

Koerner가 Gabelentz의 영향을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Zwirner(1971, 248) 역시 Gabelentz를 Saussure의 선구자라고 단순히 평가하는 것에 반대했다. 영향관계에 관한 평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의 유사성을 인정하느냐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가 있다. 예컨대 어떤 학자는 Gabelentz와 Durkheim이 Saussure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Coseriu) 다른 학자는 Durkheim의 영향은 인정하지만 Gabelentz의 영향은 부인한다. 또다른 학자는 Gabelentz와 Durkheim을 부인하지만 Whitney와 Paul의 영향을 인정한다(Koerner). 이외에도 어떤 학자는 제한적으

로 Gabelentz를 인정하고 Humboldt의 영향을 중요시한다(Christmann, Jäger). Scheerer(1980, 151)는 선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서 19세기 Schleicher 이후 언어학의 진화이론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들었다. Saussure의 개별적 아이디어, 정리, 공식 등을 어느 확정된 이론이나 아이디어에서 유도해 내거나 환원하기를 원한다면 서양 언어학과 철학의 모든 전통에서 영향관계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구는 효과가 없다. Godel이나 Mauro가 경고했듯이 이러한 평가는 그 당시 개별적인 유사한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서 Saussure의 독창성을 세부적 사항에서 가 아니라 그의 미완성된 기호학이론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2. Saussure의 이분법적 언어 연구방법

Saussure 언어 연구방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분법Dichotomie과 이율배반Antinomie을 들 수 있다. 그의 이분법은 후속세대의 학자들을 대료시켰으며 언어학의 많은 개론서에서도 이분법의 수용 및 해석에 관해서 아무런 의의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 역시 이분법이 그의 가장 특색있는 연구방법으로서 그의 이원론적 사고에 대한 편중에서 야기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Stankiewicz 1976, 9). 예컨대 그의 언어이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분법에 대한 이해가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분법은 전통적으로 이미 서양의 정신사에서 자연과 예술 정신과 물질, 존재와 본질, 존재와 의식 등 개념적으로 대립되는 쌍으로¹⁸⁾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분법적 사고는 “audiatur et altera pars 상대방 측의 말 역시 들어보아야 한다”, “jedes Ding hat seine zwei Seiten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지닌다” 등 일반적인 격언이나 처세의 지혜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된다. 발생심리학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심리학으로서 그 당시 학문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기술심리학deskriptive Psychologie에 관한 Brentano(1874)의 강의의 영향을 받고 Marty(1908), T. Masaryk (1886)은 1880년대 중반에 언어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공시적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Jakobson 1972, 164). 이러한 공시적 기술을 어원적이고 문법적 기술과의 구별에서 유도해 낸다면 이분법은 18세기 말기에 언어학에서 통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Ivanescu 1974).

18) 이분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무조건 개념적으로 대립되는 다시 말해서 이율배반 되는 개념쌍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Benveniste(1963/66, 40)에 따르면 Saussure와 관련지어 형식-실체, 개인적-사회적(언어학적), 외적-내적 등 또 다른 대립쌍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전형적인 4개의 이분법에 종속시킬 수 있다. 이분법의 방법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원론적”이라는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분법이 객관성을 지니고 또한 연구 대상 그 자체에서 추출된 방법인지 또는 이론적으로 연구 대상에 적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방법인지에 관해서 논의가 분분했다. 이분법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철학의 문제로서 이분법이 만일 존재론적, 방법론적 구조개념의 관점에서 취급된다면 보편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Albrecht(1988, 25)에 의하면 이분법은 개념적 구별로서 동질적 현상의 두 상호보완적 고찰방법이며 주어진 영역내에서 실제로 분리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¹⁹⁾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분법은 Saussure의 언어 연구방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그가 언어 그 자체를 이원적 즉 언제나 양면적 특성을 지닌 구성물로 간주했는지 또는 이러한 구분이 오직 이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연구대상에 부여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시 말해서 이분법이 객관적이고 대상 그 자체에서 추출되었는지 또는 이론적으로 연구대상에 적용되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Saussure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그가 이분법을 절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구체화했다고 비난했다. 또 한편 그가 대립쌍을 형이상학적으로 취급했다는 주장도 있다(Welke 1976, 543). Saussure의 이분법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학자들은 이분법 그 자체는 언제나 분리된 상태로 허용되나 상호보충으로 간주하는 이론적 선결로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 한편 그의 옹호자들은 그의 이분법에 관한 출처를 알고 있을 경우 그것이 본질에 의한 언표가 아니라 이론적 관점에서 상호 보완관계는 그에 의해서 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언어현상은 언제나 상호간 상응하는 양면성을 지닌다는 Saussure(1983, 23)의 주장은 문제의 해결을 한층 더 어렵게 할 뿐이다.²⁰⁾ 그런데 그의 이러한 견해는 이분법이 연구대상 즉 언어 그 자체에 관한 언표임을 입증한다. 흥미 있는 사실은 대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관점이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관점이 대상을 창조한다는 Saussure(ibid. 9)의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그의 주장은 연역법에 대한 요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분명히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 자유로이 선택된 이론적 가정의 도움으로 이상적인 연구대상을 형성하는 학문

19) Albrecht는 이분법의 구별이 대상 그 자체의 특성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부여된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20) Saussure의 메모에 의하면 언어는 둘이나 여섯의 이원성 또는 대립쌍으로 환원된다.

적 행동양식을 요구했다. 그의 이론의 주체가 되는 랑그는 이러한 이론적 구성물이다. 예컨대 랑그-빠를, 공시대-통시대 등의 대립쌍 즉 언어의 연구대상은 이론적 관점에서 창조된 구성물이다. 사물의 논리가 학문의 논리에서 생성된 셈이다.²¹⁾

위에서 논의된 관점에서 본다면 Saussure의 Cours에서 가설적-연역적 방법에 의거해서 언어학 정립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해서 언급한다면 기술언어학의 연구 대상은 이론적 구성물로서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추론해 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체계의 정의와 더불어 내재적 언어개념이 생성되었는데 이러한 개념의 극단적 모델은 Kopenhagen학과(Glossematik)에서 나타난다(Scheerer 1980, 74f.). 다음에 Saussure의 이분법적 연구방법에 관한 구체적 실례를 들어보겠다.

2.1. 랑그와 빠를

Saussure에 의하면 언어는 가치체계이며 다른 학문과는 달리 언어학의 연구대상은 미리 주어지지 않고 선택된 연구방법에 의해서 비로소 결정된다. 그의 주장과 같이 랑그²²⁾가 언어학의 출발점이 되고 또한 언어연구의 척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표면상으로 연관성이 없이 무질서한 현상이 질서정연한 이상적 연구대상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그의 구조주의 언어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랑그의 개념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랑그는 규칙의 체계, 언어표상의 총화이며 또한 의미와 음성영상의 결합에 의해서 구성된 언어기호다. 이러한 체계와 총화는 완전한 형식으로 개인집단이나 사회공동체 집단의 두뇌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개인은 체계를 토대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미리 저장된 기호에서 어떤 기호를 선택하고 조합한다. 이러한 조합은 또한 심리적-물리적 메커니즘의 도움으로 질료적으로 실현되며 개인의 사고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랑그의 질료적으로 실현된 현상 즉 언어행위를 빠를이라 칭한다 (Saussure 1983, 23~32).²³⁾

Saussure가 랑그를 언어학의 이상적 연구대상 즉 요소와 규칙의 잠재적 체계로 간주한다면 동일한 언어공동체에 속하는 통계상으로 대표되는 많은 구성원 언어행위의

21) 이러한 사태관계가 바로 명목론 또는 관습론이라고 지칭되는 인식론적 입장이다.

22) Saussure의 개념체계인 랑그-빠를의 구별이 후에 계획되었지만(Koerner 1973, 225) 이 개념체계가 언어학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일 먼저 논의하기로 한다.

23) Albrecht(1988, 27)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정의는 Saussure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차문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Cours의 원문에서 인용된 것이다.

총화는 빠를에 속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랑그는 대량이 아닌 소량의 언어자료에 의해서 표현되며(Corneille 1976, 27) 개인의 언어행위를 토대로 해서 구성될 수 있다(Fuchs/Le Goffic 1975, 11). 또 한편 Saussure는 Cours에서 개념상으로 인간의 언어능력Langage-랑그Langue-빠를Parole을 구별했고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언어 연구대상으로서 이론적으로 구성된 랑그를 우선적으로 취급했다. 그의 언어능력에 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이고 전과학적 의미로서의 언어를 뜻한다. 따라서 언어능력은 그 자체의 다양성과 부조화 때문에 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Saussure 1983, 25). 또한 언어능력은 경우에 따라서 인간의 일반적 언어능력, 모든 언어적 현상의 집합의 의미에서는 일반적 언어 그리고 보편성의 의미에서도 일반적 언어를 뜻한다. Saussure의 해석자중 극도의 정화주의자들은 랑그-빠를의 개념쌍은 원래 언어능력-랑그-빠를의 삼분법중 일부분이며 랑그-빠를의 이분법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언어능력과 랑그-빠를의 관계는 기호가 씨니피에-씨니피앙의 관계에 또는 구조(체계)가 계열적-통합적 관계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와 같다(Koerner 1973, 244).

Cours에서 랑그와 빠를의 구별은 엄격하며 또한 랑그-빠를은 Saussure 이론체계의 기본개념이다. 랑그-빠를을 구별함으로써 그는 1)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을, 2) 부차적인 것과 다소간 우연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을 구별했다(Saussure 1983, 30). 물론 사회적 특성과 함께 체계성은 랑그의 본질적 특성이다. 이러한 랑그는 또한 어휘와 문법규칙의 평균치로서 언어학의 우선적 연구대상이며 또한 분리해서 고찰할 수 있는 정확히 음역된 대상이다(ibid. 31). 또 한편으로 Saussure(ibid. 40~43)는 랑그-빠를의 구별과 연관지어 내적 언어학과 외적 언어학을 구분했다. 전자는 체계로서 랑그와 관련되며 언어의 인종학적, 역사적, 지리적, 또는 방언적 현상에 관한 연구는 후자에 속한다.

Saussure의 이분법개념중 랑그-빠를이 가장 난해할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의 적용 역시 통일적이지 아니다. 예컨대 랑그는 개별어 또는 개별어의 상태나 모든 언어에 공통적인 체계성을 나타낸다(Godel 1957, 266). 그러나 랑그는 빠를의 현상에서만 직접 관찰될 수 있고 빠를에서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학의 일차적 연구대상은 이론적 구성체다(Mańczak 1969, 171f.). 반면에 빠를은 개인적이며 서로 다른 개인의 의지나 심리적-생리적 소질을 전제로 개인적 빠를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Saussure (1983, 32)는 랑그 역시 빠를 못지 않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대상이며 두뇌 속에 내